

정부 R&D사업 '숨은 규제' 없앤다

절차·서류 줄이고, 연구비 사용도 성과·수요자 중심으로

지식경제부는 최근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 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먼저 연구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07년 6월부터 발굴해온 규제개선 사항을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에 들어간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①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으로-지식서비스 R&D 및 중소기업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②연구비사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각종 제한사항(전용 및 증액제한) 완화, 고가기자재 변경제도 개선 ③연구비 지원제도의 수요자 지향성 및 성과연계 강화를 위한-정부출연비율 개선, 우수과제 정산간소화, 연구비 카드제 개선 ④연구비사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등으로 엄정대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5월 중에는 R&D사업 전주기에 걸친 각종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R&D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 효율화방안의 주요 추진방향은 ①사업참여기회 확대(R&D사업 정보의 원활한 제공, 사업공고 기간의 확대, R&D사업 상시참여 기회 보장 등) ②각종 절차, 제도의 간소화(사업계획서 간소화, 각종 보고·승인사항제도 축소, 전자협약제도 도입, 카드제도 개선 등) ③ R&D평가의 전문성 확보(다양한 방식을 통한 최고의 전문가 확보, 해외 및 교포전문가 활용, 우수평가위원 인센티브 확대 등) ④對연구기관 서비스 강화(지식재산권 등에 법률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 외에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과지향형 R&D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R&D지원체계 혁신'도 추진 중이며, 5월 중에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02-2110-5187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

올 10월까지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09~13)'이 수립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KISTI와 KISTEP 공동으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동향'을 조사분석한 보고서에 따르

면,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국내 통계와 지표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여서, "교과부, 지경부, 통계청,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 관련 부처·기관의 연계를 통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향후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산·학·연 외 제4의 주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09~13)'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도 신규 우수연구센터(SRC/ERC) 공모

국내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특정분야별로 조직·체계화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선도 과학자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학재단에서는 2008년도 신규 과학연구센터(SRC)와 공학연구센터(ERC)를 공모하고 있다.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자유공모 10개 센터 내외로 접수받아 선정되면, 최대 7년(2008. 9. 1. 연구착수) 간 SRC는 10억원 내외, ERC는 12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요건)은 >주관연구기관은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며 >주관연구책임자(센터장)는 예비계획서 접수 마감일 현재 센터 설치대학에 재직 중인 정규직 교수로서 총괄과제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센터사업지원이 종료(7년 간)될 때까지 재직이 보장된 자여야 한다. 접수 및 선정일정을 보면, 핵심연구원 사전등록(5.1~22)·예비계획서 접수마감(5.29)·예비계획서 토론평가(6월 중순)·본 계획서 토론, 발표평가(8월 중)·추진위원회 심의(최종선정)(8월 말)·연구착수(9.1)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분야(중·대분야 간 융합과학기술)의 전략적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세계 수준의 지식 및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08년도 신규 국가핵심연구센터(NCRC)도 비슷한 일정으로 공모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ef.re.kr)를 참조하거나, 우수센터팀(042-869-6353/6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8년 대통령과학장학생' 152명 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14일 국가장학생선발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 152명을 최종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 건설허가 확정

국내최초 140만kW 출력용량으로 2013년, 2014에 각각 완공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4일 제36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신고리 3·4호기의 건설부지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건설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설허가증을 발급받는 대로 건설공사를 시작해 3호기는 2013년, 4호기는 2014년에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신고리 3·4호기는 우리 나라에 건설되는 25·26번째 원자력발전소로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등 종전의 한국표준형원전에 비해 전기출력이 40% 늘어난 140만kW 원자력발전소이다. 신고리 3·4호기의 발전설비용량은 우리 나라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의 16%를 차지하며 울산광역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2003년 9월에 건설허가가 신청된 신고리 3·4호기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건설부지의 위치·지반의 적합성, 주요 기기·설비의 안전성과 내구성, 방사선 환경

영향 등 원자력안전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3·4호기는 60년 수명으로 설계되면서 원자로용기의 재질을 개선해 중성자조사 취화에 대비하고 냉각재배관·증기발생기 등의 피로설계 여유도를 증가시켰고, 내진설계 기준(0.3g)도 표준형원전(0.2g)에 비해 강화되었다. 한편, 2006년 6월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자력 1·2호기는 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사업공정은 약 60% 진행된 상태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 조감도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국내장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천만 원, 해외장학생은 1인당 연간 최대 5만 달러의 장학금을 4년 간(최대 8학기) 지원하며,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와 메달이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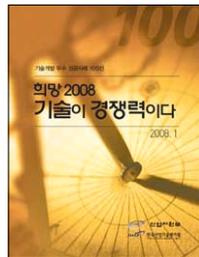
올해 선발은 신청자의 수학·과학 분야 탁월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3개 영역(논문, 수상, 수능 및 SAT성적) 및 7개 분야별(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 정보, 기타)로 구분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심층면접, 3차 선발위원회 종합평가의 엄격한 3단계 평가를 거쳤으며, 3.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03년부터 시작한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총 846명을 선발하였으며, 계속 지원 장학생 550여 명과 이번 신규 장학생 152명에게는 올해 총 7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지원사업'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미래 핵심과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영재교육지원과 02-2100-6293

『기술개발 우수 성공사례 100선』 발간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정부 등이 함께 산업기술 연구개발



(R&D)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국가 R&D 성과물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기술개발 우수 성공사례집'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은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성공적으로 완료된 기술개발 과제 가운데, 기술적·경제적 성과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엄선한 '기술개발 우수 성공사례 100선(부제: 희망 2008, 기술이 희망이다)'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 70개사와 기초기술 및 단기간 애로기술 해결 부문 30개사 등 R&D성공 100개 기업이 수록돼 있다. 이들 기업은 2개 선정분야별 기술개발사업에서 후보사제로 발굴(성공과제 전체 2천356건 중 151건)된 뒤, 기계소재·생물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들이 기술성과 사업성, 창의성 및 도전정신 등을 토대로 실시한 심층평가를 통과했다.

먼저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센트랄(자동차용 알루미늄

한국철도의 미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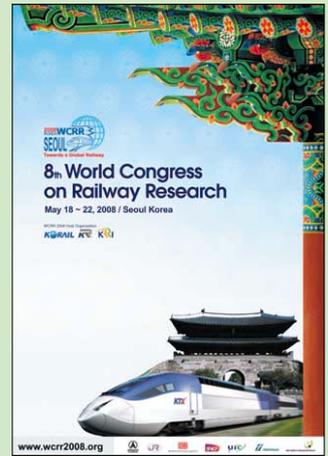
제8차 세계철도학술대회(WCRR), 5월 18일 서울코엑스에서 개막

40여 개국에서 700여 명의 세계철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8차 세계철도학술대회(WCRR)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크게 학술회의, 산업전시, 기술시찰 등으로 구성되고, 대회 메인 프로그램인 학술회의는 기반시설, 차량, 운영 등 6개의 핵심주제 아래 엄선된 3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마련되는 철도산업전시는 세계 각국의 철도연구인력과 간부급 관리자들이 직접 참관하기 때문에 세계 철도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내 철도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WCRR는 국제철도연맹(UIC)과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6개 세계 철도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세계적인 철도 관련 학술대회로 1994년 제1차 대회(파리) 이래 2~3년마다 개최되어 철도 분야의 국제협력증진 및 선진기술 교류 확대에 이바지해 오고 있는 국제대회이다. >문의: 02-364-4370, 공식홈페이지 www.wcrr2008.org



2008WCRR 포스터

미늄 컨트롤 암 설계 및 제조 기술 개발), 휴비츠(무패턴 자동 렌즈 가공 시스템 제조기술 개발), 효성(PTT 폴리머 소재 카펫의 상품화), 에스앤에스텍(크롬 및 크롬 산화막 성막기술 개발을 통한 평판 디스플레이용 블랭크 마스크 개발), 텔레칩스(전용 비디오고속기 기술을 이용한 휴대 멀티미디어기기용 미디어 프로세서 개발) 등 70개사가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초기술 및 단기간 애로기술 해결' 부문에서는 씨앤켐(PDP 유전체 보호막용 고기능 Doped MgO 소자 개발), 고려비엔피(납치의 연쇄구균증에 대한 백신 산업화), 사라콤(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가진 표준자기 콤팩스 개발), 아바코(디스플레이용 고투과율 기판 제조기술 개발) 등 30개사가 엄선되었다. 이번 사례집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기관 자료실에 배포됐으며, ITEP 홈페이지(www.itep.re.kr)에 전자책(e-book)으로도 게재되어 있다.

한편, ITEP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 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원과제의 약 40%가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해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종료과제(정부출연금 8,200억 원 투입)에서 발생한 누적 매출액은 약 4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UN이 정한 지구의 해' 선포식 열려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의 장

교육과학기술부와 UN이 정한 지구의 해 '한국위원회(위원장 장

호완)는 지난 4월 23일부터 3일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나뿐인 지구, 인류의 건강한 미래'라는 구호 아래 선포식과 지구과학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UN이 정한 지구의 해는 2007년부터 3년 간이며 올해가 그 중심이 되는 해로 지난 2월 12일 프랑스 파리의 UNESCO본부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그 후속 행사로 국내 선포식을 갖게 됐다.

선포식에는 국내 지구과학기술 관련 학회,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대학 등의 인사들과 전국 각지의 초·중·고 교사 및 학생들도 함께 모여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그리고 에너지·자원 문제 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다.

선포식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하수의 중요성을 깨닫는 체험행사와, 최근 태안 기름누출로 심각해진 해양오염과 관련한 해양과학기술포럼 및 특별전시회가 이어졌다.

또한, 선포식을 기회로 한자리에 모인 지구과학기술 관련 14개 학회는 학문의 융합을 통해 지구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이해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미래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학술행사를 가졌다.

>문의: 'UN이 정한 지구의 해' 사무국 02-3453-0503, 공식홈페이지 www.iype-korea.org

정리 | 이창규 _ 과총 미디어팀장 lck@kofst.or.kr